



9면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수해피해 책임·피해보상을"

전주매일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음 7월 16일) 제26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태풍 영향권... 전북도, 비상체제 가동

송하진 도지사 "사전대비 총력, 도민피해 최소화" 최대 300mm 강수·풍속 초속 40m... 강풍 유의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도내 7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도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 국장, 14개 시군 단체장과 태풍 마이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강풍 시 해안에서 높은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태풍 상륙 시 가급적 외부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또 강풍에 대비한 선박, 어망 등 수산시설 점검과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옥외광고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비롯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풍 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철거와 결박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2일 오후 3시를 기해 도내 7개 시군(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장수, 임실, 순창)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협업 참여 부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을 확대 소집해 24시간 태풍 복상에 대처하고 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2일 정오 12시 현재 중심기압 945hPa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62km(초속 45m), 강풍반경 300km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쪽 240km 해상에서 시속 23km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 마이삭은 2003년 9월 인명피해 사망 1명과 170여명의 재산피해를 주었던 매미와 이등경로, 중심기압, 강풍반경 등 태풍세력이 비슷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예상 강수량은 2일부터 3일까지 최대 300mm, 최대순간풍속 초

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지리산과 내장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107개 노선을 입산 통제하고 여객선 4개 전체 항로 통제, 하천 둔치주차장 7개소 통제

와 풍랑피해 예방을 위한 3,164척 어선이 피항 조치중이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유지중이며 태풍 피해 발생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최대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전북도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니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

요하다"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유지하고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등 각 실국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가 최우선이다"며 "도민들이 태풍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를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복상 대비점검과 코로나19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전북지역 올 상반기 금융민원 늘었다

총 1192건...보험 66.5% 차지

올해 상반기 전북도민의 금융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보험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2건의 금융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767건) 대비 55.4%(425건)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를 제외한 전 권역에 걸쳐 민원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처리한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민원(생명보험 86.2% 손해보험 38.3%)은 전체의 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민원 유형별로 보면 보험모집이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내부 통제(개인정보 관리·설계사 및 대리점 관리 부실 등)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 관련 주요 민원 내용은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부실, 자필서명 미이행,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관련, 대리점 관리 부실 운영, 경우 계약 등이었다.

이어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신용카드사·대부업 등)이 22.1%, 은행 10.7%, 금융투자 0.6% 순이었다.

은행과 비은행의 민원은 여신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신용카드, 신용정보, 내부통제, 예·적금 관련이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7개 예식업체 대표,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예식장 '통 큰 양보'

최소 하객 낮추고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전주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불거진 예식업체와 예비부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식업체들의 통 큰 양보를 이끌어냈다.

예식업체들은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게 된 예비부부들을 위해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을 40~50% 수준으로 줄여주고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예식을 연기해줄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7개 예식업체 대표,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급증하게 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결과물이다.

협약 참여 예식업체는 ▲아름다운미이행,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관련, 대리점 관리 부실 운영, 경우 계약 등이었다.

이어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신용카드사·대부업 등)이 22.1%, 은행 10.7%, 금융투자 0.6% 순이었다.

은행과 비은행의 민원은 여신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신용카드, 신용정보, 내부통제, 예·적금 관련이었다.

/김윤상 기자

상황으로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결혼식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에 따른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해 주고, 식사 대신 제공되는 답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협조키로 했다.

시와 예식업체,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러한 협약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식 관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전주예식민원 중재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예식장 업무와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이 금지되고 뷔페식사 제공이 금지되면서 예식 관련 분쟁이 잇따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식업체 또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로 통 큰 양보를 해주신 모든 예식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예식업체와 예비부부가 모두 피해는 줄이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결혼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